

공익 대변인

Letitia James (D)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티샤 제임스입니다 -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그냥 티쉬라고 부르지요. 저는 차기 뉴욕시 공익 대변인이 되기 위해 출마한 민주당원입니다. 공익 변호사로, 부검찰총장으로 또 지금은 시의원으로서 일하며 쌓아온 제 공직 경력은 뉴욕시의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데 느끼는 제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강력한 이익단체들에 맞서 평범한 뉴욕커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저는 뉴욕시 모든 지역의 임대 아파트에 주요한 수리를 규정한 안전주거법을 통과하는 데 앞장섰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강력한 개발자들과 부유한 기업에 맞서 지역사회들이 그들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싸웠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낸 수억 달러를 잃게 한 시티타임 부패 스캔들 관련 남용 및 사기행위를 발각했습니다. 공익 대변인은 시장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부와 맞서 노인센터 예산 삭감, 방과후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그리고 지역 소방서 폐지 반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한 입증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익 대변인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임금 노동자였고, 바로 이것이 저를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열정과 시의원 임기를 포함해 제가 공직 경력을 싸으며 추진했던 진보적인 제도를 공익 대변인 사무실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차기 뉴욕시 공익 대변인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계속 싸울 기회를 꼭 얻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 월 10 일 여러분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뉴욕시 공익 대변인 민주당 후보 레티샤 제임스를 기억해 주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공익 대변인

Daniel Squadron (D)

안녕하세요. 공익 대변인직에 출마한 민주당원 다니엘 스콰드론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 조부모님은 엘리스 섬을 거쳐 뉴욕에 오신 후 우리 가족이 교육을 받고 이곳 뉴욕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브롱크스에서 열심히 일해 가난을 벗어나셨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모든 가정이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도록 공익 대변인직에 출마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저는 부모들이 목소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잘 먹으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이 저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사용 공격무기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고성능 총기를 불법화하고 총기 구매 시 엄격한 배경조사를 요구하는 법에 찬성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과 관련해 저는 언제나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편에 섰습니다. 또한 주요 도덕개혁안을 제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공익 대변인으로서 저는 시 정부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욕시가 큰 도시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목소리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익 대변인으로 당선된다면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꼭 squadron-for-new-york.com 을 방문하셔서 제가 이룬 성과와 뉴욕을 위한 제 계획을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9 월 10 일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